

기고

강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약속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기

전라남도의 보물 같은 고장, 우리 강진은 예로부터 이웃 간의 정이 넘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화재 앞에서는 그 소중한 이웃과 가족의 평화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강진소방서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소중한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집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 장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설치하는 일입니다.

약속 1. 우리 집의 소화기, '소방차 한 대'의 힘을 믿으세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불길을 잡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하는 소화기 한 대는 실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거실이나 현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대형 재난을 막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약속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잠든 사이에도 당신을 지키십시오
화재 피해가 가장 커지는 때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날카로운 경보음으로 위험을 알립니다. 별도의 전기 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피를 도와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강진의 안전, 선물로 전하는 진심
강진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소방서와 거리가 먼 농어촌 마을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건강식품이나 생필품도 좋지만, 부모님과 이웃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소화기와 감지기를 선물해 보십시오.

"당신의 안전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이 담긴 선물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내일을 위한 동행
강진소방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예방의 완성은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집의 소화기를 점검하고, 이웃집에 감지기를 선물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화재 없는 안전한 강진'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전 약속에 동참할 때, 강진의 미래는 더욱 밝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전'을 선물하십시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고 고영제

사랑하자. 사랑 없이는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특히 그렇다. 때문에 중형으로 얽혀져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간은 상대방을 동반자가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역사가들은 이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봤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종교학자들은 신앙의 발전지로 여기기도 하고, 이를 보는 관점이야 어떻든지 간에 인류는 오늘날까지 나름대로 발전해 온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그 발전의 이면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해 있다. 그래서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질은 그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은 지금의 세상이 혼탁하다고 한다. 불의가 추종고 있다고도 말한다. 맞는 말이다.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현상이 분명 그러하니까. 하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말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아직까지도 멸망하지 않고 유

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에 더욱더 맑고 고운 사랑이 피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낌없이 지지해 줘야 한다. 기라기들처럼. 그들이 시베리아 벌판과 우리나라를 별 무리 없이 오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지지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긴 시간 동안 삶을 찾아가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자. 그래서 참살을 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오늘날은 기계와의 만남

이 많아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등 무생물과의 친숙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교류는 적어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랑 나누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한 방책으로 '사랑의 파워 기르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존 키오스의 "약하고 산만한 생각은 약하고 산만한 힘이 되고, 강하고 집중된 생각은 강하고 집중된 힘이 된다."고 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해 가면 그 힘은 이 세상을 사랑의 꽃밭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인드 파워를 길

러야 할 것이다. 자고로 사람의 마음은 무한한 힘을 발휘해 왔다. 그래서 사랑도 길러내면 그 힘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생각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반복할수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복해도 잘 안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시각화하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자.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화해 보자. 그러면 강력한 힘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잘 그려지지 않고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무시해버리자. 그러면서 매일 반복해 가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점점 구체화 돼 갈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들의 세상을 사랑이 꽃피는 화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바로 이 순간부터 사랑 나누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랑을 해온 사람들은 더욱더 사랑에 가속력을 붙여보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최근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이자 시민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모이는 공간인 만큼 작은 변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사람으로서 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집회 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경찰의 역할은 달라지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서로 다른 입장과 감정이 한 공간에 모여 있음을 실감한다.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외침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불편일 수 있다.

그 사이에서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책임은 '질서'보다 '안전'이다. 모두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집회 대응의 출발점이자 지켜야 할 원칙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집회 대응은 사전적·예방적 관

리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후적·보충적으로 질서를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주체 측과 충분히 소통하며 이동 동선과 집결 장소를 점검하고, 인파

밀집 구간 관리와 긴급차량 통로 확보 등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자유가 안전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책임이 모일 때, 집회 현장은 갈등의 공간을 넘어 성숙한 시민 의식이 드러나는 신뢰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소현 고흥경찰서 경비안보과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음력 1월 23일)

Grid of horoscope entrie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including contact info, editor names, and subscription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way 50th Anniversary'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and 50th anniversary.